박물관역사문화교실 ㉚
2019. 12. 4.(수), 14:00~16:00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김 태 식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㉚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 계 문 사 / (02)725-5216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김 태 식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Ⅰ. 가야사 소외의 이유

1. 삼국 시대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삼한 일통' 의식을 내세웠으며, 이는 승자인 신라인의 역사관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 말기의 최치원은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三韓은 곧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三國이 되었으니 신라가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라고 하였고, 고려 시대의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그 역사관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고려 말의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조선, 발해, 가야를 추가 수록하였고, 조선 초기의 권근은 <<동국사략>>에서 삼한에서 삼국으로의 계승 관계가 그릇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부분 수정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제대로 수정한 것은 조선 후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이다. 거기서 그는 한반도 남부의 삼한은 백제, 신라, 가야가 되었고, 한반도 북부의 고조선은 한사군을 거쳐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사에서 잃어버렸던 가야사가 재발견되었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수광, 안정복, 정약용 등은 그에 동의하였다.

2. 임나일본부설

19세기 말 이후 일제 역사가들이 <<일본서기>>의 이른바 '신공황후 삼한 정벌 설화'를 강조하면서 가야사는 다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임나일본부설로 발전하였으니, 곧 369년에 왜가 가야 지역을 정벌하여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한을 경영하였으며, 562년에 신라가 임나 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왜군이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에 반발하여, 천관우는 가야를 200년간 지배한 것은 왜가 아닌 백제였다고 하여, 가야를 희생시키고 백제를 치켜세움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영남 지방에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져, 가야가 수준 높은 제철 기술과 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들이 왜국이나 백제의 지배를 받은 고고학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대 한일관계는 가야사를 재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Ⅱ. 가야사의 전개

1. 문제의 제기

고려시대 이전의 금석문 및 사서 등을 통해 볼 때, 지명, 국명으로서의 가야를 가리키는 한자 표기의 용례로는 '가야'加耶=伽耶=伽倻, '가라'加羅=伽羅=迦羅=呵囉=柯羅, '가락'伽落=駕洛, '구야'狗邪=拘邪, '가량'加良, '하라'賀羅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야의 명칭으로는, 고령과 김해를 모두 포괄하면서, 사용빈도도 높고, 한국 고대사의 기본 사서인 <<삼국사기>>에서 일반적으로 쓰인 명칭이며, 당시 신라인들의 표기법이었다고 추정되는 '加耶'가 가장 타당하다.

가야의 어원에 대해서는 가나설, 간나라설, 가람설, 겨레설 등이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겨레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야의 옛 발음은 '갈랴' 또는 'ᄀᆞ랴'와

같은 것으로서, 당시의 중국, 백제, 신라에 의하여 '구야狗邪', '가라加羅', '가야加耶' 등으로 음차音借되었다가, 같은 뜻의 단어가 훗날 음운 변천을 일으켜 겨레一族로 변하였다고 봄이 옳다.

한편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구지봉에 6개의 금란金卵이 내려와 그 중 하나가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는 각 읍으로 돌아가 5가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모某 가야'라는 형태의 국명들이 나왔고, 6가야 연맹설도 나왔다. 그러나 가락국기의 6란 설화는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의 1란 설화와 차이가 있으며, 상주, 성주, 창녕의 5~6세기 토기는 가야토기가 아니라 신라토기이다.

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등의 국명은, 그들이 소국으로 존재할 당시의 국명이 아니라, 옛 가야 연맹 가운데 하나인 금관국 또는 아라국, 비화국 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라 말 고려 초의 명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저 '가야'만 쓰는 곳은 김해와 고령의 두 곳뿐이다. <<삼국사기>> 악지 및 <<삼국지>> 위서 동이전, <<일본서기>>의 백제기/백제본기 인용문 등의 기록으로 보아, 가야 계통 소국들은 시기에 따라 10국 내지 22국으로 변하면서 전개되었다.

2. 전기 가야사

낙동강 유역을 비롯한 경남 해안 지대에는 서력기원전 1세기 초부터 한반도 서북부의 철기 문화가 유이민과 함께 들어왔다. 기원후 2세기 중엽에는 그 중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낙동강 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이 진전되어 김해 가야국加耶國=金官加耶 등의 소국들이 출현하였다. 수로왕 신화는 김해 지방 소국의 성립을 표방하는 정치 이념이었다.

이들은 2~3세기에 걸쳐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12개 소국들이 합친 변한 소국 연맹체, 즉 전기 가야 연맹을 이루고, 발전된 철기 생산 능력과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교역하며 발전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김해 구야국狗邪國과 함안 안야국安邪國이 우월하였는데, 특히 해운 입지 조건이 좋은 김해의 구야국(=가야국)은 낙랑과 왜 사이의 원거리 교역 중계 기지로서 세력을 떨쳤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3세기 후반 이후의 유적에서는, 길이 8m 정도의 대형 덧널무덤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그 유물로서 청동솥[銅鍑],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 기승용 마구 등의 북방계 문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적 상황이나 부장 유물 수준으로 보아, 김해 지역에 정치적 지배 계급이 성장하여 좀 더 강한 국가 체제가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낙랑 및 대방군을 병합하자, 가야 연맹은 선진 문물 교역 대상을 상실하면서 일시적인 혼란에 빠져, 이른바 '포상 팔국'이 김해의 가야국을 공격하는 내분을 겪었다. 가야국은 배후 소국들과 신라의 지원을 받아 8국 군대를 물리쳤으나, 결국 가야 연맹은 동서로 분열되었고, 김해 중심의 동부 가야는 왜와의 교역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4세기 중후반에 백제의 근초고왕은 대방군의 옛 땅인 황해도 일대를 둘러싸고 고구려와 경쟁하기 위해서 가야 및 왜의 후원을 얻고자 하였다. 백제의 교역로 개척에 따라 가야 연맹은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백제-왜 사이의 중계 기지로서 안정적인 교역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가야의 중계 능력은 단순히 백제와 왜 사이의 지리적 편의성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부富와 무력 등도 갖춘 데서 나오는 것이었다.

가야국의 우월성은 철 생산과 철기 제작 기술과 무력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김해 대성동 2호분에서 출토된 다량의 덩이쇠[鐵鋌]와 기다란 철판들을 쇠못으로 연결한 판갑옷[縦長板釘結板甲], 철제 재갈 등의 유물은 이를 보여준다. 가야는 백제와 교역하는 대가로 일부 왜와 함께 동원되어 고구려의 동조 세력인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방의 안정에 힘입어, 백제는 황해도 지방을 차지하고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4세기 말에 광개토왕이 즉위한 이후 황해도 지방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패권 다툼은 고구려의 승리로 결말이 났고,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구려 군이 그 여파로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와 임나가라를 급습하였다. 이 정벌로 인하여, 신라는 고구려의 무력을 앞세워 가야보다 앞설 수 있게 되었으며, 백제는 가야 지역을 중계 기지로 하는 대왜 교역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해의 가야국(=금관가야)을 대표로 하는 전기 가야 연맹은 소멸되었다. 가야 연맹 세력권은 신라의 중앙 집권 능력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지역

기반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으나,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김해 지역에서 가야 연맹장의 무덤으로 보이는 대성동 고분군이 5세기 초 이후로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그러한 사태를 반영한다.

3. 후기 가야사

5세기 전반에 가야 제국은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 그 기간 중에 창녕, 밀양, 부산, 성주 등의 세력이 신라 세력에 동조하게 되니, 가야의 영역은 크게 축소되고, 가야 연맹을 영도할 세력도 나타날 수 없었다.

5세기 중후반에 가야 문화는 경상 내륙 산간 지방에서부터 다시 부흥되었다. 가야산 주변의 고령, 합천과 지리산 주변의 진주, 산청 등은 천혜의 안정된 농업 지역이었으나, 4세기 이전에는 해운 교역 입지 조건이 불리하여 그다지 큰 문화 축적이 없었다. 그런데 5세기 초 이래 경남 해안 지대로부터 철기 및 토기 제작 기술이 이주민과 함께 파급되어 들어오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은 고령의 반파국伴跛國이었으니, 이들은 가야산의 야로 철광을 소유,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5세기 중엽에 이르러 반파국은 백제의 지원을 얻고 호남 동부 지역을 포섭하여 백제와 왜를 연결하는 교역 중심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고령 지산동 고분군 축조 세력은 옛 가야 지역을 상당히 복구하며 가라加羅 또는 대가야국大加耶國으로 이름을 고치고 여러 소국을 포괄하는 연맹체, 즉 후기 가야 연맹을 형성시켰다.

475년 고구려의 한성 함락으로 인한 백제의 웅진 천도를 계기로 하여 대가야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좀 더 강화하였다. 가라국왕加羅國王 하지荷知는 479년에 독자적으로 중국 남제南齊에 교역하여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481년에 가야는 백제와 함께 신라에 구원군을 보내, 미질부(=포항시 흥해읍)까지 쳐들어온 고구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5세기 후반 및 6세기 초에 후기 가야 연맹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 그 영역은 거창과 함양을 거쳐 서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유역을 섭렵하였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삼아 신라와 대립하였다. 즉 전성기의 후기 가야 연맹은 영남 지방의 16개 소국과 호남 지방의 6개 소국을 합하여 모두 22개 소국을 아우르고 있었다.

그러나 6세기 초에 백제는 무령왕 대를 맞이하여 국력을 회복하고 남진 정책을 추구하였다. 특히 섬진강 하류를 통하여 왜와의 교역 체계를 만들고자 한 백제는 가야 연맹에 대하여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가야는 반발하였으나, 결국은 백제의 공세에 밀려 호남 동부 지역을 상실하고, 대사帶沙(하동)와 자타子他(진주) 등지에 성을 쌓아 백제와 대립하게 되었다.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에게 청혼을 하여, 가야와 신라 사이에 결혼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동맹은 파탄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가야 연맹 내부에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났다. 이를 포착한 신라는 무력 공세를 취하여 영산의 탁기탄국喙己呑國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으며, 뒤이어 532년에 김해의 금관국(=남가라국)이, 530년대 후반에 창원의 탁순국卓淳國이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러자 백제도 군대를 투입하여 함안 안라국(=아라가야) 주변의 걸탁성과 칠원의 구례모라성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었다.

6세기 중엽에 후기 가야 연맹은 고령 대가야국과 함안 안라국 중심의 남북 이원 체제로 분열된 채 백제와 신라 양측의 압력에 시달렸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범 가야권은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막고 독립적 존재로 남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백제 성왕의 외교 전략에 굴복하여 550년경에 그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러자 대가야의 악사 우륵은 가야금을 들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그러나 554년의 관산성(충북 옥천) 전투에서 백제-가야-왜 연합군이 신라에게 패배하자, 가야 연맹 소국들은 백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신라에 기울어갔다. 함안의 아라가야는 560년에 신라에 항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562년에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의 급습으로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Ⅲ. 가야사론

1. 가야 문화의 특징

가야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남한 농경 문화와 서북한 철기 문화의 결합에 의하여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이 복합 문화는 김해, 창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 해안 지대 및 낙동강 유역 일대로 퍼져나갔다.

가야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낙랑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문화의 기본 성격을 확정하였다는 점이다. 가야는 낙랑군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경상 내륙 지방 및 일본열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거기에 자신의 철 생산 능력을 더하여 번성하였다.

가야 문화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신라, 백제, 왜 등의 문화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로서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 가야 문화는 성립부터 멸망할 때까지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 성격을 유지하여, 신라, 백제, 왜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가야 문화의 네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경상우도慶尙右道, 즉 영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700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가야 문화의 시작은 서력기원전 1세기 초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기원후 562년에 대가야의 멸망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가야는 낙동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때로는 낙동강 동쪽 연안, 때로는 호남 동부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였으니, 이로 보아 가야의 문화 능력은 백제나 신라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가야 문화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일본 고대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왜는 4세기 이전 금관가야로부터 덩이쇠와 중국계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에는 대가야 계통의 장신구 및 마구 문화를 계승하여 고대국가의 바탕이 되는 물질문화를 형성하였다.

가야 문화의 여섯 번째 특징은 가야 멸망 후 그들의 인맥과 힘이 신라에 합쳐져 삼국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금관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이 신라 왕족인 김춘추와 함께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대對 중국 외교문서는

임나가라 출신의 문사인 강수가 담당하였다. 문무의 양 측면에서 신라는 가야 유민들의 결정적 조력을 받은 것이다.

2. 사국 시대론의 제창

한국 고대 시기의 대부분은 고구려와 백제의 두 강한 나라[二强]와 신라와 가야의 두 약한 나라[二弱]가 서로 뒤엉켜 세력 균형을 이루며 전개되었다. 한국 고대사는 삼국 시대 및 통일 신라 시대 체계를 벗어나, 사국 시대四國時代 및 남북국 시대南北國時代 체계로 수정해야 한다.

가야는 백제보다 98년 앞서 멸망하였으니, 사국 시대가 700년인데 비하여 엄밀한 의미의 삼국 시대는 98년일 뿐이다. 562년 멸망 당시까지 가야의 영역은 신라에 못지않으며, 말기에는 고대 국가 체제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고대 후기는 이미 발해사를 인정하여 "남북국 시대"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 이제는 한국 고대사 체계를 삼국 시대에서 사국 시대로 바꾸어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식민사관의 임나일본부설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3. 임나 문제의 재조명

가야를 임나로 인식하는 문제는 결국 가야를 둘러싼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임나 관련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임나任那'라는 용어는 슈진[崇神] 65년(B.C. 33)부터 고토쿠[孝德] 다이카[大化] 2년(A.D. 646) 사이에 215회 나오며, '일본부日本府'라는 용어는 유랴쿠[雄略] 8년(464)~긴메이[欽明] 13년(552) 사이에 35회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부' 용어의 대부분은 531년~562년 사이 30여 년간에 걸쳐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존속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임나 문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크게 보아 ① 왜를 비롯한 어떤 외부 세력이 임나를 지배했다고 하는 '임나 지배설'과, ② 왜와

임나 사이의 외교 또는 교역 기관의 활동을 나타낸다고 하는 '외교 교역설'로 나뉜다. 그 중에서 임나 지배설은 점차 퇴조하고 외교 교역설이 설득력을 얻는 추세이다.

임나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일정한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으니, 첫째로 가야와 왜 사이의 외교 또는 교역 측면을 강조하고, 둘째로 가야(임나)에 대한 외부 세력의 군사 침략 사실을 부인하며, 셋째로 백제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써 전형적인 임나일본부설은 이제 설 땅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측 연구자들은 아직도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일본 우위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료 상에 나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원래 명칭이 '재안라제왜신등在安羅諸倭臣等'이라는 점이다. '일본日本'이라는 명칭은 7세기 후반에 시작된 것이고 6세기에는 '일본'이라는 명칭이 없었으므로, 이미 6세기 중엽에 멸망한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있었을 수는 없다. 즉 '임나일본부'는 8세기의 <<일본서기>> 편찬 때 왜곡된 명칭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 관련 기사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기능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초기(534년 이후)에는 백제가 안라에 설치한 '백제의 대왜對倭 무역 중개소'의 구실을 했으며, 후기(540년 이후)에는 '안라의 특수 외무관서'(왜계 안라관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나일본부', 즉 '재안라제왜신등'은 외형적 명분으로는 가야(안라)에 주재하는 왜국 사절단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야 말기에 가야 제국과 왜국 및 한반도 여러 세력들과의 외교 또는 교역 중계 기능을 담당하는 안라의 기구 또는 官人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서력기원전 5세기 이전에 한반도의 경남 지방에서 일본열도의 규슈 지방으로 농경문화가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의 기원을 이루었다. 그 후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는 가야와 규슈九州왜의 교류가 있었고, 3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는 가야와 야마토(大和)왜의 교류가 있었으니, 이를 통하여 가야의 청동기, 철, 도질토기, 마구, 갑옷, 장신구 등이 기술자들과 함께 일본열도로 들어가서 일본 고대 물질문화를 이루었다. 가야가 멸망한 6세기 중엽 이후로는 백제와 야마토왜의 교류가 이어져, 백제의 오경박사, 승려 등이 일본에 건너가 유교와 불교, 건축, 회화 등의 고급 정신문화를 전수하였다. 그러므로 고대 한일 관계는 지배-정복 관계가 아닌 상호 교류 관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 참고문헌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56, 再版, 東京: 吉川弘文館.

천관우, 1991. <<가야사 연구>>, 서울: 일조각.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서울: 一潮閣.

_____,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3권, 서울: 푸른역사.

_____,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_____, 2014.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_____, 2014. <<사국시대의 사국관계사 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Note

Note

Note

【 2019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 2019. 2. 13.(수)~12. 4.(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의 제목	강사	비고
30	12. 4.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김태식(홍익대학교)	가야본성 - 칼(劍)과 현(絃) (2019.12.3.~2020.3.1.)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시 〈가야본성 - 칼(劍)과 현(絃)〉



지난 1991년 국립박물관은 '신비의 고대 왕국 가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가야를 다루며, 많은 유적과 유물을 가야라는 이름 아래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오늘,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새롭게 복원한 가야의 얼굴을 만나 볼 차례입니다.

- **기　간: 2019. 12. 3.(화) ~ 2020. 3. 1.(일)**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 000년〉



국립중앙박물관과 핀란드국립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0 000년 동안 핀란드 지역에서 변화무쌍하게 발전한 물질과 문화,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것이 이토록 오늘날의 것과 비슷한지, 또 과거가 미래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기　간: 2019. 12. 21.(토) ~ 2020. 4. 5.(일)**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